2월 주식시장 전망

StayAhead™

2010. 2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지속되고 연초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증시는 1월 중순 두 개의 복병을 만납니다.
전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10.7%를 기록, 금년 1분기에는 11% 성장을 걱정해야 할 만큼 회복세가 빨라진 중국이 경기회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1월에만 4번에 걸쳐 지급준비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바쁘게 쏟아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안을 내놓습니다. 중국의 유동성과 신흥시장에의 투자가 위축될까 두려워 시장은 2주 만에 8%에 가까운 하락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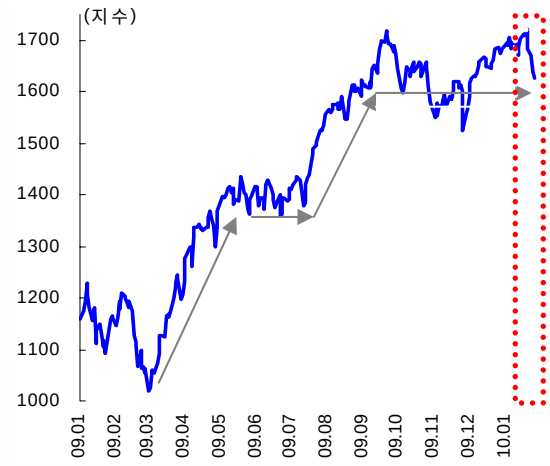
단기간에 급락했고 유동성은 아직도 넉넉한 만큼 반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열진정과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가상승 재개의 제약 요인입니다. 기업실적과 경기의 회복세가 최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시장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주가는 1월보다는 한 단계 하락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경기지표나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등락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1월 증시 돌아보기
- 연초 상승기대감 이어갔으나 부분적인 출구 전략(긴축정책) 우려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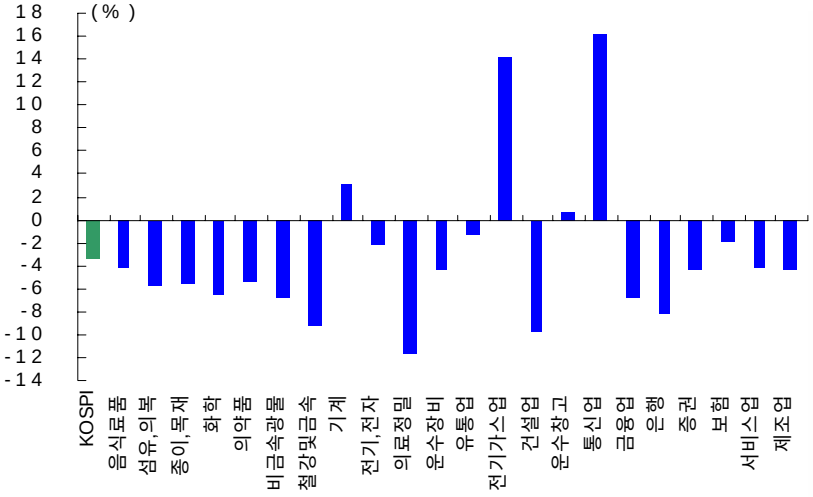
연초 상승세를 이어간 증시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미국의 은행규제책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월초에도 이어졌으나 월말에 매도가 늘어나면서 월간으로 순매수 규모는 1조원으로 축소했습니다.(1.26 기준)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원전 수주와 관련된 유틸리티/통신업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OSPI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1월 업종별 주가변동 (2010.1.27.기준)



자료: FnGuide

한발앞선 펀드정보! SAMSUNGFUND.COM
삼성투신운용 SAMSUNG

▣ 국내경제동향 : 2009년 4분기 경기회복 지속, 경기지표는 둔화

4분기 전분기비 GDP 증가율은 0.2%로 둔화되었고(전년동기비 증가율 6.0%) 금리인상 예상 시점은 6월로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 감소로 정부 소비가 감소하여, 2010년 상반기 민간소비의 회복 여부가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1월 들어 기업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기지표는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 해외경제동향 :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정책 전환의 가능성도 생겨 둔화

중국은 소비회복도 가세하면서 전년 4분기 성장률이 기대치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긴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규제안 제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위험자산 투자 선호도 역시 약화되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축소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도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시장 동향 (Fund Flow) : 국내 기관 고점 매도 지속, 외국인 순매수 규모 감소

1월에는 지수 반등과 함께 환매 물량 증가하며 주식,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9천억 이상이 순유출되었고, 이와 반대로 저축성 예금은 증가하였습니다.

'09년 4사분기에 증가했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올 1월에는 감소하였습니다.

('09년 10월 1.5조 → '09년 11월 1.8조 → '09년 12월 2.2조 → '10년 1월 1.0조 / 1.26현재)

▣ 2월 주식시장 전망 : 눈치보기 장세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은 중국 당국의 추가 대책 우려가 추가 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낙관적 투자심리가 반전될 경우 정책 변화 등의 변수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변화로 인해 강력한 상승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눈치보기 장세 속에 간헐적인 쇼크와 반등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참고 자료로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펀드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그 결과에 대해 직, 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